

2021학년도 논술 모의평가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2]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과 ㉣을 활용하여 각각 설명한 다음, (나)의 내용을 사례로 활용하여 ㉤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50점, 750±50자)

(가)

㉠ **마녀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시대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사냥은 광기가 아니라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였을 수 있다. 흔히 마녀사냥을 중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근대 초의 현상이다. 마녀사냥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점은 근대 유럽에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마녀사냥은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상인 것이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어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만들려고 했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 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마녀사냥과 유사한 현상, 타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 한국 사회에서도 국민 대다수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인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전복 세력’ 혹은 ‘빨갱이’ 라는 낙인을 찍어 마녀사냥을 일삼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려보면 마녀사냥이 결코 먼 옛날이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오늘날 성소수자나 외국인 노동자, 난민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부추기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때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협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 식의 충동이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

오늘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민자들의 나라이자 성공한 다문화 사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로벌 시대 다문화 사회화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하는 두 나라의 ㉠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이민자 집단들 간의 차이와 이질성을 포용하는 문화적 관용의 결과이다.

하지만 두 나라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유색 인종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간주하는 인종 차별주의적 편견이 지배했던 과거에는 이들 나라에서도 소수 민족의 문화를 부정하고 원주민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구대륙으로부터 이주해 온 초창기 백인들은 원주민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경멸했다. 백인 이주민들에게 토착 유색 인종은 이성이 결여된 열등한 민족이자 문명을 학습하기 어려운 사회 부적응자였으며,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곤 했다. 백인 우월주의적 편견을 바탕으로 시행된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갈등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들 두 나라는 이처럼 오랫동안 진통과 갈등을 겪은 이후 서서히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정부는 과거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사과하였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두 나라는 다양한 집단의 언어 및 문화를 인정하고, 인종이나 민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들 사례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에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

“만약 내가 사는 곳에 전쟁이 나고, 먹을 게 없어 온종일 굶거나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면 어찌죠?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낯선 타자와 만남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난민의 입장, 타자의 관점에 서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삶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나의 삶은 타자의 호소와 명령에 응답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타자란 정복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환대를 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다. 어떤 사람도 2등 시민으로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든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지배와 남용도 배격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환대의 자세는 세계 시민주의의 바탕을 이룬다.

세계 시민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를 건설하여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아테네인들의 삶의 원칙은 ‘필로크세니아(philoxenia)’였다. ㉡ **필로크세니아**는 그리스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의미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종종 신은 ‘가난한 낯선 자’로 변장해 인간을 찾아온다. 남루한 농부로 변장한 주피터와 머큐리 신들이 쉼 곳을 찾을 때 대부분의 아테네인들은 거절했지만, 가난한 노부부인 빌레몬과 바우키스는 이들을 성심성의껏 대접하였다.

(라)

모든 과학 활동은 패러다임에 의해 규정된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특정 분야의 학

자들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법칙, 지식 체계,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넓게는 시대의 주류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이 등장한 것은 패러다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적 이념의 틀에 규정되고 제한을 받는다. 항시 당대를 지배하는 이념은 사실의 수집이나 관찰조차 제한하며 인식의 기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자들이 침묵하거나 과학적 진실조차 왜곡하기도 한다.

사회 집단도 과학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 사고의 틀을 제한받는다. 새로운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더 많은 관련 진실이 붓물처럼 쏟아지고 난 후에도, 시대적 편견의 혹독한 공격에 의한 희생을 당한 후에야 가능하다. 즉 **㊸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더디고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출제 의도

- 글로벌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적 타자와 접촉할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교적, 인종적, 계급적, 종족적 타자, 성소수자나 외국인 노동자, 난민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타자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마녀사냥과 유사한 현상 또한 혹은 공공연하게 혹은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 다문화적 가치가 백가쟁명하고 있는 도덕적 혼돈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세계 시민주의의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주체적인 고민을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본 논제를 출제하게 되었다.

- 본 논제에서는 중세(혹은 근대 초기) 유럽의 마녀사냥이나 고대 그리스의 필로크세니아, 그리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경험한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같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교훈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한 학습과 성찰은 현대인들이 봉착하고 있는 다문화 상황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오늘날 당연시되는 통념으로 자리잡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즉 다문화 정책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며, 매우 더디고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역사적 희생을 경험한 이후에야 인종 차별주의적 편견을 극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음으로써 현대인들을 옥죄고 있을지 모르는 시대적 고정관념의 감옥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본 문제의 논제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가)의 '㊸ 마녀사냥'과 (나)의 '㊸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여, 양자의 공통점을 '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차이점을 '㊸ 필로크세니아'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1, 제2 논제이다. 제3논제는 (라)의 명제 '㊸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더디고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를 제시문 (나)의 내용을 사례로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 (가)는 마녀사냥이 지닌 양면성(비합리적 측면과 합리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문화 정책이 정착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는 세계 시민주의의 의미를 고대 그리스의 '필로크세니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라)는 패러다임의 의미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논제에 맞게 그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거나 가공하여 서술하는 능력, ㉠, ㉡, ㉢, ㉣의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고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그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이상형 외	지학사	2019	118-122	제시문 (가)	○
고등학교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8	230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9	218-220	제시문 (다)	○
고등학교 독서	이상형 외	지학사	2019	159	제시문 (라)	○

● 채점 가이드라인

- ① '마녀사냥'과 '다문화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필로크세니아'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필로크세니아, 문화적 차이/이질성, 타자에 대한 환대, 포용/공존, 혐오/배척
- ② '마녀사냥'과 '다문화 정책'의 공통점에 대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사회 질서 유지, 인종 차별, 사회 갈등, 사회 통합, 합리적 행위
- ③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더디고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패러다임, 편견/선입견/고정관념, 가치관/세계관, 인종 차별주의(백인 우월주의), 장기간, 사회적 진통/갈등
- ④ 위의 ①,②,③의 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핵심 키워드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문장의 논리적 완결성과 **답안의 내용적**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10점

- ⑤ 위의 ①,②,③의 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세 논제에 대한 논술 분량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어 있으며, 표현이 자연스럽고 문장에 비문이 없어
답안의 형식적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10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예시답안

마녀사냥과 다문화 정책은 다른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이 차이는 타자에 대한 환대의 자세로서 세계 시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필로크세니아라는 삶의 원칙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있다.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이민자 집단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포용하고 인정함으로써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므로 필로크세니아에 따른 것인 반면, 마녀사냥은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에 복종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배척하는 현상으로 필로크세니아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띤다.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인종 차별 정책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면서 도입된 정책이다. 마녀사냥도 타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를 통해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을 '균질한 영혼'으로 길들임으로써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한 사회 집단이 과거의 잘못된 시대적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나라들이 인종 차별 정책으로부터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이들 사회에서 인종 차별을 당연시하는 백인 우월주의적 편견을 극복하는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진통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798자)